

130개 헌법 조문으로 대한민국 읽기 시민들을 위한 눈높이 헌법 해설서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외 지음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하야 요구가 거세다. 시민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 대통령을 앞세워 권력을 농단하고 대한민국 국체를 훼손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제 자체다. 또한 그 주체이자 구성원인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헌법만 잘 작동하면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저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가 말해듯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추구하는 헌법 정신 사이에는 심각한 간극이 놓여 있다.

시민들은 헌법 제1조(국민주권주의)와 67조(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 선거제도)를 소환해 시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그 권력을 내려놓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선거를 통해 권력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가가 그 권력을 사유화해 전횡을 일삼는 경우를 적잖이 봐왔다. 심지어 헌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뜯

어고친 독재자도 있었다. 차병직 변호사, 윤재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지영 변호사가 펴낸 '지금 다시, 헌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헌법 해설서다. 130개의 헌법 조문으로 대한민국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저자들은 '시민의 교과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집필에 참여했고, 표제부터 부칙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주석을 달았다.

책은 7년 전 출간된 '안녕 헌법'의 내용을 새롭게 보강하고 다음은 개정판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들을 포함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 미디어법 파동, 세월호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책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2장이다.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아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자들은 기본권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조항의 의미를 다양한 하위 법률과 헌법재판소 판결 사례를 동원해 자세히 설명한다.

언론인 손석희 씨는 추천사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가 '헌법은 꼭 읽어야 한다'고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이 책은 쉽게 읽히는 마더까지 갖추고 있다. 헌법 조문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수많은 사례들 덕분에"라고 말한다.

<로고폴리스·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세계문학브리치

정시몬 지음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고전의 정의를 "지속적인 탁월함을 가진 작품" 또는 "고대 혹은 로마의 저작물"이라고 한다. 그와 달리 재치와 입담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고전이란 사람들이 칭찬은 하면서도 읽지는 않는 책"이라고 정의했다. 이른바 식자들의 지적 허영을 꼬집은 것이다.

마크 트웨인이 1884년에 발표한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미국 문학사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책 가운데 하나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모든 현대 미국 문학은 허클베리 핀이라는 마크 트웨인의 책 한 권에 뿌리를 둔다"고 극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마크 트웨인 자신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 첫머리에 붙인 '고지 사항'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이 이야기에서 무슨 동기를 찾으려는 독자는 고발 당할 것이다. 교훈을 찾으려는 독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이다. 즐거리를 찾으려는 독자는 총에 맞을 것이다." 지나친 정도성 경고의 발언은 이것저



1862년판 '레 미제라블'에 실린 삽화 속의 어린 코제트(왼쪽)과 브로드웨이의 장수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포스터.



것 따지지 말고 단지 문학의 맛을 음미 하라는 뜻에 다를 바 없다.

많은 이들이 경험했듯이 학창시절의 문학수업은 대부분 해석하고 분석하는 과정 즐거움은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었다. 시험을 위한 정답 찾기에 초점이 맞춰진 때문이다. 그러나 의미와 가치보다 앞서 있는 것은 읽기 자체의 즐거움이다. '세계사 브리치', '철학 브리치'의 저자 정시몬이 이번엔 문학을 매개로 한 브리치 시리즈를 펴냈다. '세계사 브리치'는 앞서 언급한 마크 트웨인의 정신에 입각한 고전 문학의 참맛을 선보이기 위해 펴낸 책이다. '원전을 결들인 맛있는 인문학'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고전 읽기의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자는 서양 문학의 원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에서부터 '범죄의 여왕' 에거사 크리스티의 명품 추리 소설, 로버트 프로스트의 전원시에 이르기까지 50여 작가들의 작품 80편을 소개한다.

오랜 세월 생명력을 유지해온 고전들 가운데서도 언어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들을 골라 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영어 텍스트까지 함께 기술돼 있어 원전의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그 어떤 이득을 따지기에 앞서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어야 한다. 사과를 한입 베어 물면서 그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각종 비타민과 풍부한 섬유소만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저자는 먼저 '20세기 최고의 소설'로

꼽히는, 그러나 비유와 상징으로 난해한 '율리시스'에 대해 지레 겁을 먹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저 책을 집어 들고 읽다 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도처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인공 블룸의 식도락 취향을 따라가듯, 아일랜드식 블랙 유머를 접하다보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책에서 말하는 재미가 흥미진진한 이야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기쁨이나 유희 같은 긍정적 감정만을 뜻하지도 않는다.

답답하고 명쾌한 시어로 쓰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읽다보면 숲속에서 '언어의 삼림욕'을 하는 기분에 빠진다.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보르레르의 '악의 꽃'에서는 인간의 추악한 속내를 적나라하게 엿보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비교하는 즐거움도 만만치 않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을 읽으면 장대한 서사의 힘을 느낄 수 있다. 반면 비슷한 시기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을 통해서 당대를 묘사하는 사실성과 그것의 감동과 접한다.

탁월한 문학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의미와 가치는 무한하다. 그러나 그 무게를 처음부터 안고 끔중대며 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가볍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재미를 찾다보면 어느새 대작에 담긴 지혜와 통찰 또한 체득할 수 있다.

<부키(주)·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타락한 세상에 남은 유일한 천국에 담긴 재앙



이 얼마나 천국 같은가

존 치버 지음

20세기 미국 현대문학의 거장이자 단편 소설의 대가, 최고 문장가, 열여덟 살에 등단한 뒤 평생 끊임없이 글을 쓰고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 존 치버는 생전에 160여 편의 단편과 5편의 장편을 발표한 말 그대로 '작가'다.

그의 유작 '이 얼마나 천국 같은가'는 암투병 중이던 1982년 생애 마지막에 쓰였던 작품이다. 평생 작가로서 완벽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좌절했던 그는 이 소설에서 현대인의 내면을 예리하게 파고

든다. 이 소설로 존 치버는 미국 예술가카데미로부터 문학부문에 국민훈장을 받는다.

소설은 종종 미학인 비행 물체를 보았다는 기사가 실리는 마을 제니스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 마을에는 비즐리 연못이 있는데 언젠가 이곳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이 발생한다. 레뮤얼 시어스는 뉴욕 시내의 이스트 78번가에 사는 노인이다. 그는 '남만이 있던 시절'을 기억하는 세대이며 전쟁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즐리 연못이 쓰레기 매립지로 변해버린다. 도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시어스에게는 유일한 천국인 비즐리 연못에 담긴 재앙을 풀어가는 작가의 통찰이 반복된다.

<문학동네·1만1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위기의 시대, 고전에서 경제의 근본을 찾다



동양고전으로 읽는 경제

조준현 지음

경제라는 말은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유래했다. 백성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백성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일이 국가의 의무라는 뜻이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경세제민 철학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조준현 참사회경제교육연구소장이

펴낸 '동양 고전으로 읽는 경제'는 동양의 고전, 특히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책을 통해 동양에서 경제가 가진 의미를 주목한다. 동양의 사상가들이 쓴 고전을 통해 수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사상과 이론을 넘은 경제의 의미를 되짚어본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는 경제 현상과 원리에 대해 '국부론' 못지않은 뛰어난 통찰이 담겨 있다. 공자는 '논어'의 '계씨' 편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든 가족을 거느린 사람이든 적응을 걱정하며, 사람들이 빈곤한 것을 걱정하기보다 그들에게 인정이 없음을 걱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다시봄·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

'버리고, 줄이고, 정리하고'... 일본 스님의 행복 비법



모이지 않는 연습

나토리 호겐 지음

결혼초기 신혼살림만으로 시작했던 심플했던 집은 어느새 청소할 공간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가득차 있다. 넘쳐나는 물건 때문에 그것들을 보관할 물건까지 새로 구입하게 되고, 어딘가에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해 같은 품목을 또 사게 되는 일까지 생겨난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나토리 호겐

은 신간 '모이지 않는 연습'을 통해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고 심플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모이지 않으면 버릴 일도 없다. 불필요한 것을 잘 버리는 것보다 모이지 않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모이지 않는 연습'은 단순한 정리 기술이 아니다.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적시하게 하고 소중했던 것을 되돌아보게 한다.

도시 생활의 주지인 종교인이자 아내와 자식이 있는 평범한 생활인으로서 저자는 수십 년간 수행의 결과인 깨달음을 방 청소, 소풍, 매뉴 선택, 목욕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주제로 이야기한다.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DAEMYUNG RESORT

GRAND OPENING 2016. 6. 22

대명리조트 신규분양 회원모집

13번째 리조트! 쓸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산토리니섬의 하얀 쓸비치 호텔&리조트 삼척과 마찬가지로 동해바다~ 황금빛 동화같은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척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쓸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709실)

* 7월 1일까지 특별혜택 50%	* 7월 1일부터 특별혜택 40%	* 7월 1일부터 특별혜택 30%	* 7월 1일부터 특별혜택 20%	* 7월 1일부터 특별혜택 10%
EQUESTRIAN	YACHT	GOLF	SKI	OCEAN WORLD
소노벨리제 승마클럽	가제 미니나 배	비발디파크 대중골프장(24홀)	리조트 및 4가지 유해시설	오션월드 및 아쿠아월드
주말 20%, 주중 40%	주말 20%, 주중 40%	주말 50%, 주중 무료	무료	주말, 승수기 주중 30% / 최상 위층 50% / 최상위 주중 무료

분양문의(24시간 상담 가능)
062)714-2000

1. 해외리/스위트/납입계좌 | 2. 예약주 (주)대명리조트 | 3. 지점: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명리 1000-1000 / 060-967807 / 국민은행 614701-04-002981 / 신한은행 295-06-061967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 대형 웨딩홀 준공
-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향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